

럿셀氏의 財産論과 感想(제5회)

高永煥

野生의 果實만 먹고 生活함에 習慣되며 또 衣服을 안 입는 所以로 『만체스터-』를 困難케 하든 中央『아프리카』土人들은 歐洲 資本家の 일을 하는 것만으로써 잇는 略少한 家屋稅 稅문으로 酷烈한 勞動을 하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들은 歐洲人 勢力의 支配로부터 解放된 時만 眞正으로 幸福스럽다는 事實과 産業主義는 그들에게 異常한 幽閉의 悲慘을 加할 뿐만 아니라, 白人은 幾分間 免疫할 수 잇는바 各種의 病으로 그들을 殺害한다는 事實은 一般히 承認한다. 또 第一 善良한 黑人 勞動者는 森林 中에서 出來한지 長久치 안음으로, 아즉 賃金受取의 經驗에 汚染되지 안은 生素한 土人이라는 事實도 一般히 是認한다. 그러나 何人이든지 吾人 稅문에 그들이 墮落되는 것을 防備치 안으면 안되겠다고 主張하는 者는 업다. 何故냐 하면 如何한 犧牲을 할 지라도 世界의 生産을 增大식이지 안으면 안되겠다는 事實을 事實上 疑訝하는 者가 업는 所以이다.

生産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는 信念은 殆히 狂信的이며 無分別的이며 無慈悲的이다. 何物이든지 生産만 하면 그 生産된 것이 如何한 것이든지 그는 問題가 되지 안는다고 思考하는 傾向이 있다. 現在의 모든 經濟制度는 如上한 思考를 獎勵식이다. 何故냐 하면 失業이란 恐怖는 賃金勞動者로 하야금 如何한 事이든지 그는 天惠物이라고 싱각하게 믿든 싸답이다. 다만 生産을 增大하라는 狂暴的 慾望은 人類의 思想으로 하야금 훨씬 더 重要한 問題의 解決을 負擔식이며, 또 社會가 勞動의 生産力 增大를 避免할 만한 恩惠 맞기를 不可能하게 한다.

우리 人類가 衣食住에 不足之歎이 업는 시에는 그 以上の 物質的 財貨는 다만 虛飾物에 不過한 것이며, 또 感服할 수 업는 所有慾= 設使 그것이 本能的이며 幾許間 根絶할 수 업는 것이라 할지라도 =을 滿足식임에 不過한 것이다. 近代의 生産方法에 依하면 一定한 人口로 하야금 그다지 長時間 勞動을 안이 할지라도, 다만 商品生産의 方法을 採用함으로써 眞正으로 必要한 物品을 生産할 수 있다.

近代에 奢侈品을 生産함에 虛費되는 時間은 一部分은 娛樂的으로 又是 國家的 休日로 一部分은 더 좀 高尚히 敎育함에 또 一部分은 手勞를 不要하는 일에 利用할 수 있다. 萬一 吾人이 慾望만 하면 吾人은 다시 科學, 藝術, 廣範한 智識, 精神的 敎養, 又是 賃金勞動者의게 더 만흔 時間의 餘裕, 或은 知識, 快樂에 對하여 더 만흔 能力을 가지게 할 수 있다.

現在에는 다만 賃金(식) 뿐만 아니라 殆히 全部의 俸給도 다만 吾人이 正當히 勞動할 時間 以上을 勞動함으로써 얻게 된다. 過度한 勞動을 함으로써 年八百磅(八千圓)의 收入을 얻는 사람은 普通 그 일의 半만 해서는 年四百磅의 收入을 얻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實際 그는 온 終日 又是 每日 勞動하기를 조아 아니하면 一分의 收入도 얻지 못하는 것이 往々 있다. 이는 다만 物品의 生産額이 多大하기만 하면 조타는 過度의 信念 때문이다. 곧 사람은 長時間 勞動하는 것이 正當하고 또 當然하다고 생각하며, 短時間 勞動하는 것이 도리혀 그 結果가 善良한 줄을 理解치 못한 까닭이다.

今日の 産業制度 下에 伴在하는 모든 殘忍性—이는 다만 歐洲에 잇슬 뿐 아니라, 熱帶地方에도 잇는 것—은 極少數인 博愛主義者의 薄弱한 反抗을 각금 바들 뿐이오 一般의 人士들은 些豪도 顧慮치 안는다. 그런 所以는 吾人의 如斯한 事件에 關한 意識的 慾望이 現代 經濟組織의 伴來하는 不合理 때문에 吾人의 眞實한 要求의 가장 重要한 部分을 忽諸히 除之하고, 다만 僅少한 一部分을 掩蔽하고 잇는 까닭이다. 萬一 如斯한 弊害를 匡正救濟하라고 할 것 갓흐면, 吾人의 眞實한 要求와 活動과의 關係가 조금도 隱諱됨이 업시 더 直接으로 되는 다른 經濟組織에 依하는 外에는 다른 妙案이 없다.